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63 호 현대불교 2023년 12월 13일(음 11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자신을 아신다면 전체의 근원이 그 자신의 근원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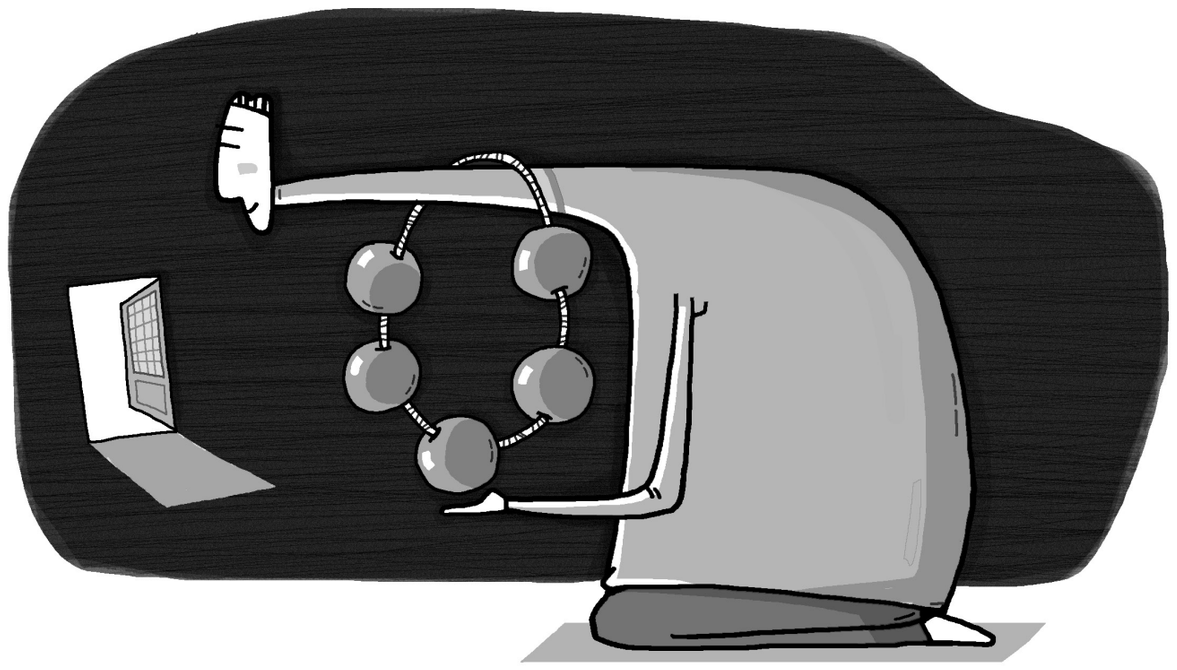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십 년, 이십 년, 근 삼십 년을 두고 여러분을 접해 왔으나 여러분을 가만히 볼 때마다 참, 내 몸과 같이 아프고, 그 아픈 말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의학적으로도 발전이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나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리가 있었고, 그 후에도 그런 도리가 많이 있었지마는 지금은 의학적으로 발전이 돼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수화풍으로써 형성돼서 미생물이 생겨서 그 모든 미생물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하여금 수없이 모습을 바꾸면서 나투어서 화했습니다.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이 될 때까지 얼마나 그 쓰라림을 겪어 왔나 하는 거, 그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싸워 왔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의 짐승들과 생물, 무정물 또는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거쳐 왔다는 그런 이치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쳐 와서 지금 인간이 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연구를 하고 본다면 예전부터 과학자가 생기고 철학자가 생기고 수많은 공업자가 생기고, 말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못할 때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잘할 때도 있고, 발전을 능숙하게 해 나갈 때도 있었고 또 못해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끊긴 때도 있었고 성장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인간이 돼서 이렇게 아무리 물질적 발전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심성의 그 능력은 앞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심성에 의해서만이 연구가 됐던 거고 일체 만법의 근원이 됐던 거지, 심성을 빼놓고서 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이름은 많겠지만 심성으로 인해서 일체가 다 발전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목표를 하나로 해서 심성 과학이라고 하든가 심성 의학이라고 하든가, 이 심성을 붙이지 않으면 의학과 과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無)의 활용으로서 발전을 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그 자연 법계의 근원이 우리 심성 근원에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는 입증해야 할 겁니다. 과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으니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입증입니다. 이것이 심성 과학이라고 해도, 생활이 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디에서 입증을 꼭 해야 한다지만 우리는 항상 입증을 해 가면서도 그걸 입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것이 아닙니까? 한 발 떼 놓는 대로, 생각 하나 하는 대로 겉으로 나오는데 어째서 그것이 입증하지 않는 겁니까? 증명하는 겁니다. 우린 증명해 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지켜봐 가면서 입증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의학자들도 그렇고 그 미생물을 보기 위해서 현미경이니 뭐, 여러 가지 물질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냈습니다. 병 증세도 그렇고 어떠한 세균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건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하고 같은지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삶이 보람되기보다는 의욕을 다 잃어버리는 폭이 됩니다. 무슨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든가, 무슨 또 보람을 느낀다거나 이런 거를 아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럴 때 무슨 의욕이 나서 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허무한 마음만 앞서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허무하다고 그러지만 이 몸이 허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본다면 아주 실질적이고도 실천적이고 생동력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보람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기계화를 연구해서 현미경이니 뭐, 컴퓨터니 탐지기니 하는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불가에서 말하는 건 오신통이라고 왜, 피대가 돌면 베어링이라고 구슬 같은 게 안에서 돌죠? 그런 구슬 알처럼 생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걸림 없이 구릅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천체망원경으로 하나는 구슬을 만듭시다. 탐지기로 만듭시다. 컴퓨터로 만들고 또는 영사기로 만들고,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불가에서는 이름하느냐 하면, 천체통신기 말입니다, 무전통신기 그거하고, 구슬을 만들려면 다섯 가지가 되고 책정기까지 여섯 가지가 되겠죠. 책정기는 즉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밖엔 없습니다, 시쳇말로.

옛날에는 타심통, 숙명통 또 천이통, 신족통, 천안통 이 다섯 가지를 오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기계 아닌 기계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 구슬같이, 베어링이 기계 속에서 돌아가는데, 피대가 돌아가야 그게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맥 동맥을 피대 줄로 비유한다면 똑같은 얘깁니다.

그 자연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법칙에 의해서 한다면 어폐가 있겠지만 자연의 법칙 그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내놓을 수 없는 베어링 다섯 개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으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었고, 의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 심성 과학이라는 건 무에서 유로 나오기까지 이 인간이 입증을 안 하면 할 데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생각한대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물질 하나를 갖다가 (손수건을 들어 보이시며) 연구해서 발명을 했다면, 만약에 개구리 알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알은 셀 수 있는 입증을 했는데, 이 무의 심성 과학은 입증을 할 수 없으리만큼 수효가 헤아릴 수 없단 말입니다. 무한개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러나 참 묘한 법이, 불가사의한 법이라고 하지만 묘한 법이면서도 현실에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체를 다 둘이 아니게 한마음으로서, 자기가 깨달았다기보다는, 즉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한생각에 이 우주 공간에 꽉 차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도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묘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스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하는데 그런 일이 천차만별로 말도 못 했습니다,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두고. 그랬으니 겪어 나온 그 얘기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남들은 목탁이나 치고 밥이나 내려 먹으면 그뿐으로 스님네 할 일 다 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노릇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간 중에도 중노릇하기가 어렵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입니다, 의학자들도 한 가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살림을 해 가면서 이 공부 하시라는데 왜 못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 얘기한 거 말입니다, 그 오신통을 스스로 굴리고 있다는 사실! 스스로 굴리고 있는 무의 법에 의해서 유의 법과 둘이 아닌 까닭이 바로 바깥으로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걸 응용 못 한대서야 될 노릇입니까? 그것도 과학인데요.

어떠한 병자가 척추를 못 쓰고 움죽거리질 못하는데 병원에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십 년이나 걸렸답니다. 그렇다면 무의 진리에서 의학도 한 부분! 한 부분인데 그 한 부분 때문에 전체가 다 보람을 잃는 겁니다, 빛을 잃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부처님 법도 바로 연구입니다. 내가 나를 계발하는 연구! 내가 나를 탄생하게 해

☞ 22면으로 계속

